

'함께 만드는 전주형 주거복지 정책'

주거복지 컨퍼런스 첫날 유승수 전주시 정책연구소 연구원, '지자체와 주거복지' 세션에서 제안

서민 주거 안정 등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지역중심의 주거복지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주거복지사업의 지방분권화를 이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승수 전주시 정책연구소 연구원은 9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열린 '제5회 주거복지 컨퍼런스'의 '지자체와 주거복지' 세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함께 만들어가는 전주형 주거복지 정책'을 제안했다. 전주시와 주거복지 컨퍼런스 조직위원회가 마련한 '제5회 주거복지 컨퍼런스'는 대한민국 주거복지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주거복지 컨퍼런스로, 9일과 10일 이틀간 국내 주거복지·도시재생 관련 단체와 학계, 공공기관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진행됐다.

유 연구원은 이날 '전주시 주거복지 정책 사례와 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주거권에 대한 최근 논의 내

용과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 등 주거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와 지자체의 역할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주거복지 전달 행정체계 구축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정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민간건설 공공임대아파트 문제 대응 △부도 임대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 대응 △단독주택 주거환경 관리를 지원하는 해피하우스센터 운영 △전주형 사회주택 도입 등 전주형 주거복지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전주시의 노력들에 대해 설명했다.

실제, 시는 지난 2015년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보금자리를 잃을 뻔한 임차인들에 대한 구제대책을 마련했으며, 올해 부영주택의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에 강력히 대응하는 등 서민들의 집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힘쓰고 있다. 또, 올해 초에는 조직개편을 통해 전국 최초로 전담부서인 '주거복지과'를 신설하고, 주거복지네트워크 운영과 사회주택 공급 착수, 주거

복지 기본계획수립 추진 등 시민들의 주거복지 강화에 주력해왔다.

유 연구원은 "함께 만들어가는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주거복지과와 같은 행정전담조직을 정비하고, 지역 사회 중심의 주거복지센터 설립하는 등 지역 중심의 주거복지 전달 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지자체가 스스로 지역의 주거복지 수요를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사업 추진 시 지자체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고, 사회주택과 공공지원임대주택 등과 관련한 제도 및 정책적 기반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생활개선 욕구와 정책과제, 도시재생에서의 게스트리피케이션 대응방안, 집수리 사례와 개선방안, 지자체의 주거복지 사례, 도시재생에서 소외되는 주거취약 계층(쪽방 주민, 노숙인 등)들의 실태,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차

보호법 개선방안 및 임차권 강화 등 9개 세션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둘째 날인 10일에는 올해 컨퍼런스의 대주제인 '주거복지와 도시재생'을 주제로 한 변형출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빈집 실태와 빈집문제해결 사례 및 빈집 조사방법, 새 정부 공적임대주택(공공임대, 공익임대, 사회임대)의 개념과 방향,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및 임대주택 공급의 활성화 방안, 주거복지 컨퍼런스의 성과와 운영방안 등 5개 세션에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박순중 부시장은 개회식 환영사를 통해 "민·관·학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내·외 학계 연구사례와 주거복지 현장의 경험적 실천을 공유하며 소통하는 장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주거복지와 도시재생이 결합된 새로운 주거복지 정책 실현을 위한 생산적이고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군산해경, 레저보트 사고예방 노력 결실

출항대비 사고 발생비율 3.2%로 전국서 가장 낮아

레저보트 사고 예방을 위한 군산해경 양경활서의 노력이 조금씩 결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9일 군산해경은 "올해 들어 10월말 현재까지 관내 수상레저 활동과 사고를 분석한 결과 출항대비 사고 발생 비율은 3.2%로 전국평균(7.4%)보다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올해 출항신고 후 바다로 나간 레저보트는 모두 1,457척으로 최근 5년간 최고 활동량 기록을 경신 중이다.

수상레저 활동 신고는 2015년을 기점으로 세 자릿수에서 네 자릿수로 뛰어오르는 등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사고는 ▲2015년 1,078회 출항 29건(2.7%) ▲2016년 1,052회 출항

31건(3.0%) ▲2017년 1,457회 출항 47건(3.2%)으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평균 사고발생비율 7.4%에도 크게 못 미치는 결과로 군산해경은 그간의 노력에 대한 고무적인 성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해경은 전체사고의 80% 이상이 바다와 선박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라고 보고 온·오프라인에서 지속해서 교육과 홍보를 해왔다.

특히, 지난 8월에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구조에 취약한 해역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했고 9월에는 풍호회, 온라인 카페, SNS 운영자 등을 '안전리더'로 선정해 자발적인 수상레저 안전문화 조성에 힘을 보탤다. /군산=김판근 기자

'안중범 뇌물' 박채운, 대법 징역 1년 확정

대법원이 안중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영재(57) 원장의 부인 박채운(48)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으로 넘겨진 사건 중 첫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상고 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황소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박씨의 주장은 형사소

송법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는 김 원장의 부인 박씨를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안 전 수석에게 4,900만원 상당, 김진수 전 보건복지부차관에게 1,000만원 상당 등 총 5,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박씨가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측근인 최순실(61)씨의 국정농단에 주도적으로 관여해 이익을 취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뉴스2

간판 작업하던 인부 2명, 8층 높에서 떨어져 사망

9일 오전 10시26분께 전주시 효자동 한 건물 8층 높에서 간판 작업을 하던 인부 2명이 떨어져 사망했다.

이 사고로 이모(52)씨와 백모(51)씨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사고는 이들이 타고 작업하던 크레인 인이 균형 잃고 쓰러지며 일어났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상민 기자

가족 동원해 보험금 5500만원 타낸 병원 직원 '털미'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종합병원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완상경찰서는 9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황모(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혐의로 황씨의 부인과 딸도 불구속 입건했다. 황씨 등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최근까지 1,200차례에 걸쳐 황씨가 근무하는 군산의 한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보험금 5,500만원을 부당하게

받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직원 할인이 되는 점을 이용해 진료비를 카드로 결제한 뒤 영수증만 챙기고 끝장 결제를 취소하는 방법을 써 실제 결제 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을 타냈다.

이들은 보험금을 타내는 과정에서 보험사 직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빨리 돈을 입금해라. 내 성질 건드리면 가만 두지 않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상민 기자

전북대~건지산 걷기 좋은 길 생겼다

전주시, 무장애 나눔길 조성 완료... 거대 생태축 구축



전북대학교와 덕진공원, 전주동물원·건지산으로 이어지는 길이 모든 시민들이 걷기 좋은 길로 탈바꿈했다.

전북대학교와 덕진공원, 전주동물원·건지산으로 이어지는 길이 모든 시민들이 걷기 좋은 길로 탈바꿈했다.

전주시는 전북대학교 구정문에서 덕진역까지 이르는 500m 구간을 전북대 캠퍼스를 활용해 '덕진 무장애 나눔길'로 조성하는 사업이 최근 완료됐다고 9일 밝혔다. 무장애 길은 장애물이 없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유모차 등 모든 시민들이 걷기 편리한 길이다.

무장애 나눔길이 조성되면서, 전북대학교 신정문의 힐링숲과 신정문~구정문 사이의 녹색예술거리 나눔숲, 무장애길, 덕진공원 주변 웰빙 그린웨이, 전주동물원·건지산으로 이어지는 전북대학교 일대가 걷기 좋은 길이자 시민들을 위한 거대한 생태축으로 구축됐다.

먼저, 최근 조성된 덕진 무장애 나눔길은 시가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지원한 3억원의 복원기금 등 총 5억원을 들여 경관이 좋지 않은 담장과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전북대학교 캠퍼스 500m 구간

을 장애물이 없는 녹색 돌레길로 조성한 사업이다. 이는 사업 취지에 공감한 전북대학교가 시민들을 위해 해당 토지사용을 영구 승낙하면서 가능했다.

특히, 이곳은 휠체어와 유모차 등

의 운영을 고려해 높낮이가 없도록 자연친화적인 황토 포장도 실시되고, 다양한 수목이 식재돼 장애인과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 약자와 시민들이 모두 편리하고 안전하게 숲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힐링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무장애 나눔길은 지난해 전북대학교 신정문에서 구정문까지 대학캠퍼스를 활용해 조성한 녹색 예술거리 나눔숲과 지난 2014년 전북대 신정문에서 조성된 힐링숲과도 연결돼 시민들이 도심 속에 자리한 대학 캠퍼스에서 아름답고 편안한 산림휴양 기회를 제공받게 됐다.

뿐만 아니라, 무장애 나눔길 조성으로 전북대에서 시작해 덕진공원 주변과 동물원·건지산 등 북부권까지 주요 생태거점으로 걷기 좋은 인도가 이어지게 됐다.

앞서, 시는 덕진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약 17억원을 들여 덕진공원 둘레길 1.5km 전체 구간을 인도로 연결한 '덕진공원 웰빙그린웨이'로 구축했다. 이 사업을 통해 기존 좁았던 인도 폭이 확장되고 보도와 차도가 분리됐다. 또, 덕진노인복지회관 뒷길 600여m 구간은 차량 통행이 금지된 보행자 전용공간으로 바뀌었다. /김민근 기자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서부신시가지 도청역**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덕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